

2020년 9월 18일

# KIWOOM DAILY

| 기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선물옵션 만기일 앞두고 변동성이 큰 하루

페이스북 -3.30%, 아마존 -2.25%, 애플 -1.60%, 테슬라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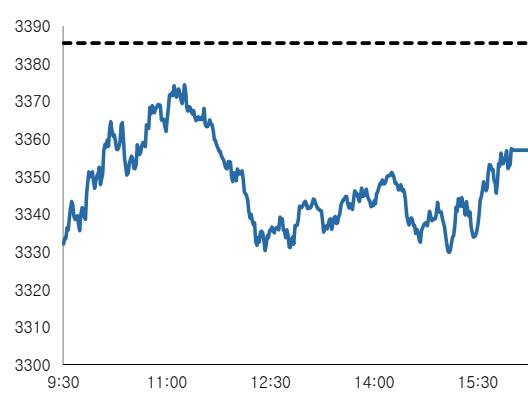
### 미 증시 특징: 대형 기술주 변동성 확대

미 증시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및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하락 출발. 더불어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란 또한 부정적인 요인. 장중 코로나 피해에 대한 지원 기대 속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으나 변동성이 확대된 대형 기술주로 인해 지수 하락폭은 재차 확대 되기도 했음. 다만, 장 마감 전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낙폭 축소되며 마감(다우 -0.47%, 나스닥 -1.27%, S&P500 -0.84%, 러셀 2000 -0.63%)

미 증시는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 및 선물옵션 만기일 여파로 변화. 유럽에 이어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재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과 관련된 논란으로 지수 하락. 전일 CDC(질병통제 예방센터)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백신이 11~12 월에 고위험군에 우선적으로 공급 될 것이며 일반인에 대한 조치는 2021년 2~3 분기나 되어야 한다고 언급. 이는 파우치 소장의 발언과 일치. 더불어 백신 개발업체들의 임상 시험 도중 부작용이 속속 발표되고 임상 포기 사례까지 나오자 실제 백신 개발은 빨라야 연말이나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 이런 가운데 추가 부양책 관련 논란은 지속. 트럼프는 금액 증액을 촉구한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냉담한 반응을 보임. 물론 트럼프의 항공 업종에 대한 지원 법안 찬성 등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유입되며 장중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음

한편,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18일)을 앞두고 소프트뱅크의 주식옵션 전략 수정의 영향도 지수 하락 요인. 지난 11일 언론에서는 소프트뱅크가 주식 옵션 전략을 수정해 다소 보수적이며 우량 기술주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 특히 낮은 가격 콜 옵션을 매수하고 높은 가격의 콜 옵션을 매도하는 콜 옵션 스프레드 거래로 수정해 제한적인 수익과 제한적인 손실을 취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추정. 이는 기술주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며 이후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 당시 언급된 종목은 아마존(-0.25%), 어도비(-0.36%), 알파벳(-1.66%), 세일즈포스(-2.42%), 넷플릭스(-2.82%), MS(-1.04%), 페이스북(-3.30%)이며 오늘 장중 3~4% 하락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큰 종목군

###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기움증권

###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406.17 <span style="color: blue;">-1.22</span> 홍콩항셍		24,340.85 <span style="color: blue;">-1.56</span>	
KOSDAQ	885.18 <span style="color: blue;">-1.24</span> 영국		6,049.92 <span style="color: blue;">-0.47</span>	
DOW	27,901.98 <span style="color: blue;">-0.47</span> 독일		13,208.12 <span style="color: blue;">-0.36</span>	
NASDAQ	10,910.28 <span style="color: blue;">-1.27</span> 프랑스		5,039.50 <span style="color: blue;">-0.69</span>	
S&P 500	3,357.01 <span style="color: blue;">-0.84</span> 스페인		7,086.20 <span style="color: blue;">-0.35</span>	
상하이종합	3,270.44 <span style="color: blue;">-0.41</span> 그리스		663.25 <span style="color: red;">+0.31</span>	
일본	23,319.37 <span style="color: blue;">-0.67</span> 이탈리아		19,739.73 <span style="color: blue;">-1.12</span>	

자료: 블룸버그, 기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형 기술주 하락

페이스북(-3.30%)은 전일에 이어 규제 당국의 소송 가능성으로 급락했다. 여기에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소프트뱅크의 주식 옵션 관련 불확실성이 불거진 점도 페이스북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이 영향으로 아마존(-2.25%), 넷플릭스(-2.82%) 등 여타 관련 기업들이 장중 4% 가까이 급락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컸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가 재 확산 되는 경향을 보이자 아메리칸 타워(-4.77%), 크라운 캐슬(-2.12%) 등 상업용 부동산 업종과 사이몬 프로퍼티(-3.02%) 등 쇼핑몰 운영업체 등이 하락했다. 더불어 매리어트(-3.11%), MGM(-2.13%) 등 호텔, 리조트 업종도 부진했다. 물론 줌 비디오(+1.21%) 등 코로나 수혜 종목군 중 일부는 강세를 보였다

테슬라(-4.15%)는 다음 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장 중 8%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낙폭이 축소되며 마감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1.23%), 델타항공(-1.76%) 등은 코로나 우려로 장중 3%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트럼프가 대규모 지원 법안에 찬성한다고 언급하자 2% 넘게 상승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을 보이다 결국 하락 마감했다. 모더나(-1.38%), J&J(-0.83%) 등은 백신 개발 지연과 임상 관련 불확실성 우려로 하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19%	대형 가치주 ETF(IVE)	-0.51%
에너지섹터 ETF(OIH)	-0.89%	중형 가치주 ETF(IWS)	-0.51%
소매업체 ETF(XRT)	-0.96%	소형 가치주 ETF(IWN)	-0.63%
금융섹터 ETF(XLF)	-1.04%	대형 성장주 ETF(VUG)	-1.33%
기술섹터 ETF(XLK)	-0.83%	중형 성장주 ETF(IWP)	-0.7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22%	소형 성장주 ETF(IWO)	-0.86%
인터넷업체 ETF(FDN)	-1.72%	배당주 ETF(DVY)	-0.30%
리츠업체 ETF(XLRE)	-2.21%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4%
주택건설업체 ETF(XHB)	-0.7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7%
바이오섹터 ETF(IBB)	-0.39%	미국 국채 ETF(IEF)	+0.03%
헬스케어 ETF(XLV)	-0.33%	하이일드 ETF(JNK)	+0.04%
곡물 ETF(DBA)	+1.15%	물가연동채 ETF(TIP)	+0.06%
반도체 ETF(SMH)	-0.23%	Long/short ETF(BTAL)	+0.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53.58	+0.21%	+4.37%	-8.47%
소재	419.18	+0.76%	+4.05%	+6.74%
산업재	671.06	+0.23%	+4.05%	+3.91%
경기소비재	1,186.13	-1.59%	-1.21%	-1.87%
필수소비재	656.76	-0.65%	-0.19%	-0.19%
헬스케어	1,227.91	-0.31%	+1.36%	-1.42%
금융	409.42	-1.00%	+0.78%	+0.37%
IT	1,996.42	-0.84%	-0.13%	-1.04%
커뮤니케이션	195.34	-1.83%	-1.51%	-1.51%
유트리티	300.35	-0.82%	+1.33%	-0.79%
부동산	224.47	-2.19%	+1.57%	+2.3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미 증시 변동성 지속 우려 부담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0%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0.40%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69.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 및 백신 관련 논란, 그리고 연준을 비롯한 BOJ 등 각국 중앙은행들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는 신중함을 보였던 점이 부담이 돼 1.2% 하락했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 증시는 선물옵션 만기일(18 일)을 앞두고 대형 기술주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나스닥이 장중 한 때 2.4% 하락하기도 해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그렇지만 하락 요인이 주로 미국내 개별 이슈에 의한 결과라는 점, 그리고 전일 어느정도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된 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 앞두고 대형 기술주에 대한 콜 옵션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점을 감안 전일 FOMC 이후 지수는 조정을 보이고 있어 옵션 청산에 따른 미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 투자심리가 개선될 개연성 또한 높지 않다. 특히 미국 옵션 시장에서 최근 나스닥의 조정이 있을 때에도 상승을 주도했던 일부 종목의 콜 옵션 매입이 증가해 금요일 미 증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성이 높다. 이를 감안 시장은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최근 지수 변화를 이끄는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주택 지표 둔화

8 월 미국 신규 착공 건수는 전월(149.2 만건)이나 예상(148.6 만건)을 하회한 141.6 만건을 기록했다. 허가 건수도 전월(148.3 만건)이나 예상(153 만건)을 하회한 147 만건을 기록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89.3 만건)을 하회한 86 만건을 기록했으나 예상(85 만건)을 상회했다. 4 주 평균은 지난 주 97.3 만건을 하회한 91.2 만건을 기록했다.

9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17.2)나 예상(15.5)를 하회한 15.0 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수주(19.0→25.5), 고용지수(9.0→15.9) 등 대부분이 상승 했으나 재고지수가 전월 -1.9 에서 -10.8 로 크게 감소하자 전체 지수는 전월 보다 하락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산유국의 감산 이행 강화로 2% 상승

국제유가는 OPEC+ 등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이행을 강화하고 10월에 추가적인 임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 상승했다. 이날 OPEC+ 감산 이행 관련 회담에서 이라크 등 감산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에 벌칙성 추가 감산을 압박했다. 이들의 이행 미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행률은 102% 기록해 여전히 양호한 모습이라는 점도 유가 상승 요인이었다. 여기에 사우디가 유가 하락이 좀더 이어질 경우 10월에 추가 회의를 열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장 초반 전일 FOMC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으나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강세분을 대부분 반납했으며 결국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로화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 약세에 대한 반발로 달러 대비 강세로 전환했으며 파운드화는 BOE 통화정책에서 경기 불확실성 확대 우려로 추가 부양책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미 국채금리는 주택지표 둔화와 미 증시 조정으로 하락했다. 다만, FOMC에서 연준이 통화정책 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추가 부양책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금리 하락은 제한되었다. 대체로 채권시장은 FOMC를 소화하며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보합권 등락을 보이며 마감했다.

금은 전일 금 선물 시장 마감 후 발표된 FOMC 결과에 대한 실망 속 1.1%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마찰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76% 철근은 0.35%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0.97	+2.02	+9.84	Dollar Index	92.905	-0.33	-0.46
브렌트유	43.30	+2.56	+8.09	EUR/USD	1.1846	+0.25	+0.26
금	1,949.90	-1.05	-0.73	USD/JPY	104.71	-0.23	-1.34
은	27.100	-1.37	-0.70	GBP/USD	1.2975	+0.06	+1.33
알루미늄	1,781.00	-0.81	-0.47	USD/CHF	0.9085	-0.10	-0.23
전기동	6,780.50	+0.05	+1.68	AUD/USD	0.7312	+0.08	+0.74
아연	2,514.00	-0.55	+4.03	USD/CAD	1.3155	-0.17	-0.28
옥수수	375.25	+0.94	+2.81	USD/BRL	5.2326	-0.09	-1.63
밀	556.25	+2.63	+1.46	USD/CNH	6.7542	+0.13	-1.33
대두	1,028.50	+1.71	+5.22	USD/KRW	1174.40	-0.14	-0.89
커피	118.00	-1.54	-10.40	USD/KRW NDF1M	1169.35	-0.33	-1.6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87	-0.98	+0.99	스페인	0.263	+0.40	-8.40
한국	1.500	+1.80	-2.20	포르투갈	0.281	-0.40	-8.50
일본	0.017	-0.40	-1.10	그리스	1.065	0.00	-5.90
독일	-0.491	-0.70	-5.80	이탈리아	0.952	-1.50	-5.5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